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솔로몬의 찬가

(시편 72:1-20)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부가 항상 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섬기는 곳마다, 그리고 의가 추구되는 곳마다 번영하므로 가정이 든든히 세움을 받고, 비생산적인 이들이 생산적이 될 것입니다.

본 시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Derek Kidner는 신약성경 어느 곳에서도 메시아와 연결되어 본 시가 인용된 바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본 시가 이상적 왕을 말한 것이라면 이사야 11:1-5, 60장-62장의 예언과 더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Charles Hodge는 그의 조직 신학에서 시편 72편을 자기 왕국을 축복한 승리하신 왕을 묘사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왕국은 영원하고 우주적이며 완전한 평화로 지켜지고, 사랑으로 그에게 복종되는 왕국입니다.

본 시는 그리스도 왕국의 성격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설명합니다.

- ①그 나라의 성격(1-4절)
- ②그 나라의 기간(5-7절)
- ③그 나라의 확장(8-11절)
- ④그 나라의 본질(12-14절)
- ⑤그 나라의 축복(15-17절)

그리고 18-19절은 송영으로 본 시의 결론일 뿐 아니라 시편 2편의 결론입니다.

1.그 나라의 성격: 의

처음 4절은 왕국의 근본 성격을 말하면서 의를 3번이나 제시합니다. 1절에서 왕은 의를 수여 받아야 하고, 2절은 왕은 백성을 의로 재판할 것을 예언하며, 3절에서는 의로운 재판의 결과 백성들이 평강을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 주제는 다섯가지 특성으로 나누어 볼때 더욱 충분히 발전합니다.

솔로몬의 초기에는 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를 구할 때 그러했습니다(왕상 3:5-28, 10:1-9). 그러나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높은 표준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좇으며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으로 압박했으며 이기심과 죄로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1절과 같이 주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주시기를 구해야 하며 지도자는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만들고 자신의 완전한 의를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2.그 나라의 기간: 영원함

5-7절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간이 영원함을 묘사합니다.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계승하여 또 40년간 다스렸으나 결국 모두 죽었습니다. 세상 통치자에게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 왕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3.그 나라의 확장: 우주적

8-11절은 그리스도 왕국의 위대한 확장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8절)는 그 나라가 우주적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강은 유브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국의 지리적 영역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땅

을 말할 것입니다. 유브라데스는 동쪽 끝을 말한 것이고, 다시스는 서쪽 끝을, 스바와 시바는 남쪽 끝을 말한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계 11:15).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 세대부터 오는 세대까지의 시간적인 것뿐 아니라 모든 장소, 모든 백성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의 의로운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4.그 나라의 본질: 불쌍히 여김

그 나라의 본질은 긍휼하심입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대부분은 측은의 심정을 갖기 원합니다. 조지 부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때 ‘A kinder, gentler America(더 친절하고 더 신사적인 미국)’을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더 친절하지도, 더 신사적이 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공평한 사람과 죽임에 처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5.그 나라의 축복: 번영

다섯 번째 연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부터 오는 복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이고 영적인 복입니다. 물질적 번영은 15-17절에 묘사되었습니다. 금과 곡식과 열매는 고대 사회에서 번영의 척도였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다스릴 때 모든 종류의 번영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부자가 될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가 항상 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섬기는 곳마다, 그리고 의가 추구되는 곳마다 번영하므로 가정이 든든히 세움을 받고, 비생산적인 이들이 생산적이 될 것입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인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갈 3:8-9).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까닭에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18-19절).

본 시의 송영은 세상이 아직 도래를 기다리는 그 나라를 회상케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만 지상의 어떤 통치자도 신정 국가를 실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과 함께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도래할 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제3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대선후보 초청강연

29일(월) 오후2시: 민주당 이인제 후보 · 오후3시50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11월 5일(월)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서울교회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원장 이종윤 목사)에서 개최한 제3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지난 9월3일(월)부터 11월5일(월)까지 10주간 '한국교회와 국가를 위한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번 3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오는 12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각 정당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을 확정지었다.

29일(월) 오후 2시에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강연을 하고 이어서 3시50분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강연을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11월 5일에 한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강연은 서울교회 본당에서 한다. 2층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은 3층과 4층에 자리를 잡으시기 바란다.

2008년 교회봉사지원서 작성

11월 11일(주)까지 사무국으로

현재 우리교회는 2008년도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교회학교와 찬양대, 그 외 여러 부서에서 봉사할 성도들의 지원을 받기로 하여 오늘 주보에 「2008년도 교회봉사지원서」를 간지로 넣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여러 형태로 봉사를 하고 있는 성도들과 2008년에 처음 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본인의 봉사지원서를 작성하여 11월11일(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2008년부터 스테반회도 분리

지난 주 우리교회는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령에 따라 권사회와 청년부를 분할한 바 있다.

이번 주에는 우리교회 안수 집사들의 모임인 스테반회를 제1스테반회(60세 이상) 제2스테반회(60세 미만)로 분할하여 스테반회가 더욱 활동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였다.

성경통독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필사2회 : (8교구)강희자 권사
- 필사 : (3교구)하선경 성도 (7교구)김치순 권사 김희진 권사
- 12독 : (12교구)김경철 장로
- 6독 : (8교구)김인식 권사 4독 : (2교구) 이웅선 장로
- 3독 : (9교구)최정자 권사
- 2독 : (9교구)김동렬 집사 김진숙 권사 (13교구)박성희 집사 유봉여 권사 (14교구)정명숙 성도
- 1독 : (1교구)박영자 권사 유선희 집사 조선임 성도 하영수 장로 (2교구)박성금 권사 이복규 장로 한명순 권사 (3교구)유승순 장로 이민숙 집사 인계선 권사 주성숙 집사 최정순 권사 (4교구)김금복 집사 오영숙 권사 최양혜 권사 (5교구)심화숙 권사 이준석 성도 이창희 집사 정현수 성도 최소희 권사 최학인 장로 (7교구)이상호 집사 이영기 장로 채복순 권사 (8교구)강명신 집사 김영정 권사 김정은 권사 김중윤 집사 박용봉 집사 (9교구)유신 집사 조상희 권사 (11교구)오선숙 성도 (12교구)김선희 권사 김인숙 집사 마경녀 성도 박명석 권사 양주열 학생 유명종 집사 이광희 성도 이정연 권사 이형희 권사 (13교구)김보경 집사 문금희 성도 조정식 장로 (14교구)강윤희 권사 김상욱 장로 안선희 집사 (대학부)김관중 (에바다부)김미향 집사 (청년부)유동인 표정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alling 2007 고등부 찬양집회

11월 3일(토) 오후 4시 - 웨스트민스터 홀

우리교회 고등부(부장: 최차순집사)는 사명자 대회의 일환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하여 Calling 찬양집회를 갖습니다. 이번 Calling 2007 고등부 찬양 집회는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 닫혀있는 마음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교적부를 정리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맞춤형 전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대신자를

정하여 초청장과 전도지를 발송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찬양집회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뜨거운 가슴으로 품는 만남의 시간에, 고등부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첫 사랑을 체험하고 자아의 존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찬양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과 온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시명자의 기도 - 선교의 시명자들

무너진 성벽이

중수되게 하옵소서

김영호 서양정(러시아 선교사)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000년이 넘는 장구한 기독교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공산정권의 지배로 기독교문화는 있으나 기독교 신앙은 없는 나라로 전락해 버린 러시아 땅에 부족한 저희를 선교사명자로 쓰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나아가오니 복음의 청지기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러시아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둠과 악한 영이 난무하고 있는 러시아 땅에 성령님 임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는 정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러시아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특히나 러시아 정치지도자들과 고위 관료들, 젊은 청년 엘리트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시고, 새로 도입된 자본주의의 폐해로 방황하는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러시아가 복음화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러시아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생명을 살리는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러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동토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끝까지 러시아 영혼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러시아 선교 사명자가 되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러시아에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고자하시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과 그 이름의 거룩함이 러시아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종교개혁 490주년 기념 특별기고

갱신, 개혁, 부흥



임익국(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

오늘은 종교개혁 490주년 기념주일이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에서 마틴 루터가 교회(Schlosskirche)의 출입구 문(門)에 면죄부판매의 부당함을 95개 조항으로 적어서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이 독일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루터의 이러한 행위는 내면(속사람)의 갱신에서 터져 나왔다. 어릴 적부터 총명했던 그는 부모의 기대를 온 몸으로 무겁게 느끼면서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어느 여름날 친구와 산길을 가다가 함께 가던 그 친구가 벼락을 맞아 즉사하였다. 이 경험이 루터로 하여금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게 하였다. 이 도시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된 루터는 실존적 불안감과 씨름하면서 신앙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람이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사람이 죄인으로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루터는 1512년부터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을 가르쳤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이 말씀을 통하여 루터는 -마치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가 공중으로 훨훨 날아오르듯이- 이제까지 사로잡혀 있던 고뇌의 늪에서 해방되었다.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은혜), 오직 성경의 진리를 깨우쳤다.

루터의 갱신은 교회개혁으로 이어졌다. 믿음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란 점을 깨우친 까닭에, 그는 사람의 죄를 면제해준다는 면죄부 상자에 돈(동전)을 넣는 인간행위를 거부하게 되었다. 착한 행실을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

“
**믿음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회개혁은 예배개혁으로,
 갱신은 변화의 시작,
 갱신의 출발점은 회개에 있다.**
 ”

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며, 구원은 하나님이 거주시는 선물인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 강조하였다. 교회의 권위 또한 교황이나 공의회(Council)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깨우쳤다. 교회는 교황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피라미드) 구조의 제도(Institute)가 아니라 신앙인의 공동체라고 보았다. 이제, 루터는 감히 교황의 권위를 거슬렀다. 황제가 주재하는 재판정에서도 자신이 깨우친 진리를 증언한 루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 목숨이 위태로워진 그는 바르트부르크 성의 다락방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

다. 11개월 동안 조용히 숨어 지내면서 신약성경번역에 매진하였다.

루터의 교회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추진되었다. 1523년부터 비텐베르그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루터의 교회개혁은 예배개혁으로 시작되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선포로 구성되는 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새롭게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 성경과 설교의 중심이며 말씀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삼중적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며 교회개혁의 원동력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루터의 자기 갱신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마치 화산이 터져 나온 것 같은 힘으로 교회를 개혁하였다. 이러한 갱신과 개혁을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와 잇대어 보고자 한다. 특별히, 올해 2007년은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당시의 부흥운동이 재현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런데 부흥은 갱신과 개혁을 기반으로 일어난다고 본다. 루터의 갱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핵심알맹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성찰'이다. 오늘의 우리도 한국 교회 12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할 것이다. 갱신은 변화의 시작이다. 또한 갱신의 출발점은 회개에 있다. 죄를 회개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지적, 윤리 도덕적 갱신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변화는 곧 개혁이다. 갱신을 통해 변화되는 교회는 개혁되는 교회이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 오늘의 우리나라 교회는 갱신과 개혁을 통하여 실추된 기독교의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의 존재방식이 변화되어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1907년의 신앙 각성과 부흥은 사경회(查經會)를 바탕으로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악되었고 또 성경공부가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성령의 역사는 곧 말씀사건을 통해 일어났다. 지금의 교회부흥도 바로 여기에 있는 바 하나님 말씀을 통한 부흥이다.

만민에게 전도 - 유년부 친구 초청 잔치

친구와 함께 오는 날!

정미연 집사(유년부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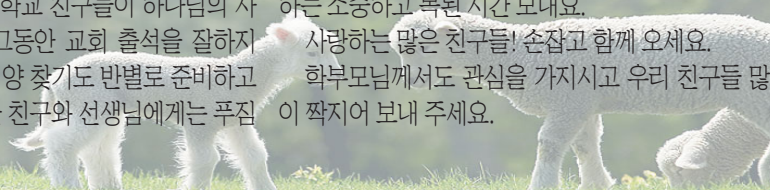
2007년 사명자 대회와 100만인 전도 시범 교회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유년부는 11월 4일 주일 1부 가족 예배 후 한티공원에서 친구 초청 잔치를 엽니다. 년 초 부터 대신자로 품고 기도해 온 친구들을 손잡고 데려 오는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토요일 하교 시간에 맞춰 대곡, 대치, 대도, 대현 초등학교로 교사들과 각 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출석을 잘하지 못한 친구들을 찾는 양 찾기도 반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 한 친구와 선생님에게는 푸짐

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을 동산에는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담긴 글들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하는 감사 카드가 아름답게 펼쳐질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 해 주시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 가지세요. 즐겁고 신나는 놀이와 맛있는 다과도 먹으면서 하나님 사랑과 그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소중한 복된 시간 보내요.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 손잡고 함께 오세요. 학부모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친구들 많이 짝지어 보내 주세요.



순례자 캠페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의 사랑 나눔운동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실 때!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나눕시다

1. 한두층 걸음에서 운동을
2. 베푸는 마음에서 기쁨을
3. 세우는 질서에서 사랑을

천국시민양성 - 서울 검도교실

검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정찬주 집사
(3교구, 검도교실 지도사범)



우리 서울교회에 검도교실이 열리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에 더하여, 부족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 좀 더 헌신할 일이 무얼까 기도하던 중에 주어진 달란트를 주님 영광 위해 사용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곧 검도를 통해 주일학교 전도에 헌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마침내 지난 10월 13일(토)에 <검도교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검도는 힘이나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력과 정신통일이 중요합니다. 이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검도는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마치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검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형제, 이웃과 친구들 상호

간의 예의를 몸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교회 교회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청소년 전도와 선교를 위해 검도가 작은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서울교회 검도교실>로 오셔서 함께 운동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수련시간 : 새벽반 - 화, 목, 토요일 오전 06:30~07:30.
토요일반 - 토요일 오후 3~7시.
*수련장소 : 701호 *수련비는 없습니다.
*모든 회원은 대한검도회 회원으로 자동입회가 되며, 승급·승단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찬양

오늘저녁 찬양 예배는 소프라노 안은영 선생과 중후하고 깊은 음색의 바리톤 조봉현 선생의 찬양으로 드러진다. 두 분은 모두 이태리 밀라노의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Schubert 국제 콩쿠르, Piero Mascani 국제 콩쿠르 이외에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부부 성악가이다.

함께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 하고 있는 두 분은 오늘 저녁 독창과 중창을 통하여 Mozart의 화려하고 고난도의 기교적 찬양곡 "Alleluja" 외에 두 곡으로 찬양 드린다.

순례자

서울교회 신문 <순례자>는 아래와 같이 함께 일할 봉사자를 찾습니다.

- 모집분야: 취재, 촬영(사진), 편집(매킨토시 사용자 능자) 각 0명
- 응시자격: 서울교회 세례교인으로서 문서선교에 달란트와 비전이 있는자
-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11월 18일(주일)까지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이유를 적은 지원서, 그리고 교구담당 교역자 추천서를 사무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최종발표 - 11월 25일자 순례자에 공고

2007 성경암송대회 은혜 중에 마쳐

지난 10월26일(금) 열린 2007 성경암송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입상자들이 나왔다.

본선 참가자들은 21일(주) 실시된 예선(총 86명

참가)에서 선발된 이들이 34명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성경암송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상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한다.

<교육1국>

- 대상: 박연준(유년부)
- 금상: 박연경(초등부)
- 은상: 이정현(유년부)
- 동상: 장해라(유치부)

장려상: 신동훈(유치부)

<교육2-5국>

- 대상: 김진달(장년부)
- 금상: 김소연(중등부)
- 은상: 최지혜(청년부)

장려상: 유은수(고등부)

이영선(장년부)

<영어암송부>

- 대상: 김필구
- 은상: 박경호

2007 가을 시즌 제8회 화요정오 음악회

Chamber Music Concerts with Organ

오르간 듀오 연주회



이번 주(10월30일) 화요정오음악회는 오르간 듀오 연주회로 준비된다. 오르간 연주는 이성심 집사와 전용숙 교수 두 분이 한다.

이성심 집사는 서울신학대학 교회음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맨하탄 음대 대학원 졸업(박사), 미국 오르가니스트 협회 콩클 Weschester Chapter 입상하였다. 현재 서울신학대학원에 출강하고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로 봉사하



고 있다.

전용숙 교수는 서울신학대학 교회음악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를 졸업하였다. 현재 서울신학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오르가니스트 협회 이사이기도 하다. 이 날에는 Ludwig van Beethoven의 곡 외에 다수의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동정

- 이사 : 5교구 임법창 집사 강서구 화곡 7동 369-18 우성빌라 501호
6교구 유태서집사, 김선미집사 가정 : 신정7동 목동APT 1118-608
- 득녀 : 3교구 유남근(유승순 장로 장남) 정은영 성도 가정
- 주간식당 봉사 : 바울전도회(10.28) 엘리야선교회(11.4)
- 금주의 식사 : 오정수 장로 이영희 권사 가정
(손녀 첫돌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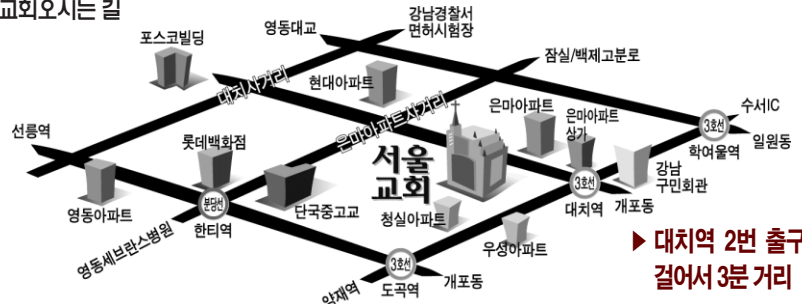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7 사명자대회(10월7일~11월25일)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3. 목회자신학세미나, 서울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4.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